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전화 063.442.1166~7
이메일 gscur@daum.net

재생이



4월호

■ 발행일 2020. 4. 25.

■ 기획 김기은

■ 편집·발행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군산

대도시에서의 탈피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공포로 인해 우리 일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거나, 종식되더라도 우리의 생활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북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도시재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민 도심재생과장 군산 방문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점검
‘주민들의 직접적인 만족효과 고려’ 당부



4월 22일 국토교통부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이 군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시는 중앙동지역 내에 조성되고 있는 거점시설 께보스토리1899(옛 수협창고, 해망로 146-24)에서 옛 수협창고 리모델링 공사 등 27개 세부사업의 진행사항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진행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

업변경, 부처협업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특히 거점시설 ‘께보스토리1899’의 상생협력상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모범이 되도록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만 도심재생과장은 “사업 하나하나가 군산 도시재생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퍼즐조각”이라며 “성실히 사업을 추

진해온 만큼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협조 과제를 많이 안고 간다면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만족효과를 고려하며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1조)

●위치



●활용

센터 2층 로비에 도시재생사업 안내 및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소규모도시재생

월명동 · 흥남동 주민공모사업

총 사업비 1억1천6백3십만원, 주민공모 15개 사업 선정

3월 24일(화) 주민공모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20년 소규모도시재생 월명동 · 흥남동 주민공모사업」 심사 결과 주민들의 사업계획서 15개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선정했으며 각 사업계획서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과 함께 사업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선정된 주민 또는 단체는 조정요청 내용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월명동은 공연 및 체험 부문 총사업비 3천5백

만원에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체험행사(대표 최정은)”등 4개 사업, 문화상품 개발 부문 총사업비 2천5백만원에 “칠보공예를 이용한 우체통거리 문화상품 개발(대표 강영말)”등 4개 사업과 주민공모 부문 총사업비 1천8백만원에 “특별한 우체통거리체험 (대표 나계향)”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흥남동은 주민공모 부문 총사업비 3천8백3십만원에 “우리가 만드니까 미원광장이 좋다 (대표 박춘남)”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지역	사업명	단체명(대표자)
월명동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체험행사	(사)아리울역사문화(문정현)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손편지축제 '군산우체통거리영상제작'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배학서)
	제3회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3인 이상 주민(김경주)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손편지축제 체험행사	3인 이상 주민(최정은)
	품격 있는 콘텐츠로 우체통거리 만들기II	미술공감채움(고보연)
	우체통거리 문화상품 개발	군산공예협동조합(최윤정)
	우체통거리 문화상품 '통신역사 매직블럭'	새이빛전통공예연구회(이혜숙)
	칠보공예를 이용한 우체통거리 문화상품 개발	3인 이상 주민(강영말)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손편지축제 '우체통거리의 추억'	3인 이상 주민(이점순)
	제3회 군산우체통거리손편지축제 '특별한 우체통거리체험'	3인 이상 주민(나계향)
흥남동	추억의 검정고무신	한지모던아트 협동조합(김순화)
	미원공원 색을 입다	문화공동체(이상훈)
	흥남동 보물찾기 청소년 문화큐레이터	미술공감채움(고보연)
	우리가 만드니까 미원광장이 좋다	흥남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박춘남)
	희망을 밝히는 '아침장터'	어르신공동체(김영애)

코로나19로 주민공동체 활동도 주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중앙동과 월명동 주민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패보선창 인심축제(2월 8일 예정)와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5월 1일, 2일 예정)가 잠정연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동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관협정과 재밌는거리를 주제로 하는 도시재생대학도 잠정연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주민공동체 활동에 숨통이 트이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코로나19,오면 안 돼!

민 · 관의 합동소독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5월, 도시재생 광장마켓에 참여하세요

군산공예협회(대표 최윤정)는 5월16일(토)부터 구 시청광장에서 도시재생 광장마켓을 엽니다. 당초 3월부터 매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도시재생 광장마켓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광장마켓은 원도심지역 상권활성화 및 구 시청광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예인들의 소소한 경제활동의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광장마켓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혹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예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의 온기와 정성을 담아 만든 다

양한 창작 공예품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와 교류를 지향하는 마켓입니다. 물론 예술인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중고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군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와 신뢰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1:1 직거래라는 점에서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경제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들의 가족 단위 참여가 원도심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군산공예협동조합 최윤정 이사장

2020 도시재생 광장마켓
5월 드디어 시작합니다~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구 시청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마켓을 열어나갈 예정입니다.
생거광장
 모집기간: 2020. 5.1~5.10 (10일간)
 대상: 군산시민 (청소년, 대학생 환영)
 운영일시: 2020.05.16(토) 오전 11:00~오후 18:00
 장소: 시간여행마을 구 시청광장
 모집종류: 공방마켓 10팀, 핸드메이드마켓 10팀, 체험마켓 10팀, 중고버룩마켓 20팀
 (역거리는 수제청, 수제방, 수제맥 등 핸드메이드제품만 가능하며 사업자가 있으신분은 한해 5팀만 모집합니다.)
 *** 버스킹에 참여하실분 모집합니다 ***
 ## 공산품 및 일반 식품 참여불가 ##
 문의: 063.442.8536
 군산공예협동조합 / 문화기획평비재

주민공모사업 **홍남동**

우리가 만드니까 미원광장이 좋다

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홍남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박춘남 회장)는 4월14일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가 만드니까 미원광장이 좋다'의 첫 번째 사업으로 조경교육(1차시)을 미원광장에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된 이날 교육으로 주민들은 월별 조경지식 등의 이론과 도구를 이용한 조경실습을 익혔다. 교육을 마치고, 앞으로 미원광장의 조경을 주

민 스스로 관리해나겠다는 마음을 모아 능수도화를 미원광장에 기념수로 식재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2차 수업에서는 미원광장에 식재된 나무들에 이름표를 달아주기로 했다.

'우리가 만드니까 미원광장이 좋다' 사업은 조경, 미원동 특화상품과 고물상의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리사이클링 공예품 판매, 마을관리에 필요한 공구의 주민공유 등의 사업을 구상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남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이번 주민 공모사업에 주민 거점지 마련 비용을 자부담으로 책정하고 있다.



주민이 한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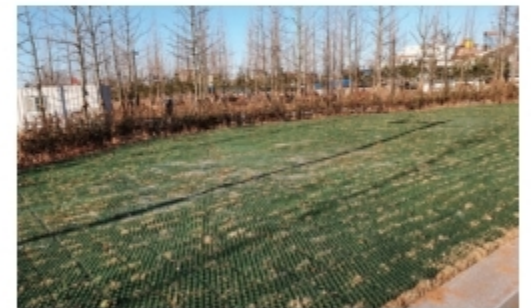
신영시장
야외공연장 및
바닥분수대
설치

제안



글_ 신영시장상인회 송기섭 회장

현재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신영시장 근처 도시재생 숲 지역 공영주차장 끝부분에 위치한 반달모양 공간에 잔디가 깔려져 있으나 위치상 신축될 LH행복주택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신영시장과 LH행복주택을 이어줄 수 있는 문화공연 야외무대와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주변 행사나 공연을 유치하여 신영시장을 알리며 여름에는 바닥분수를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과 LH행복주택의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자연스럽게 신영시장으로 올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영시장을 홍보하여 시장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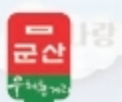
신영동
골목길 정비 및
CCTV
설치

제안



글_ 뿌리공동체 박정자 회장

신영동 구)퍼팩트 건물 뒤 구시장로 및 동신영길과 접하고 있는 건축물이 수년째 공실 건물로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이 되었으며, 도시숲 옆 복개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무단으로 쓰레기 등이 투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특성상 골목길이 많고, 가로등 노후 및 불량 청소년들의 잦은 이동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두려움과 불편이 있으며, 최근 잦은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LED 가로등 교체와 방범용 CCTV 및 쓰레기투기단속 CCTV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골목길 정비(포장)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합니다.



'우체통거리' 오행시 공모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대표 배학서)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재치있는 '우체통거리' 오행시를 공모합니다. 우체통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나 아래의 방법으로 응모하세요.

- 모집 일시** 2020년 5월 5일 화요일 18:00까지
- 응모 방법** 휴대폰 문자 또는 직접 응모
- 휴대폰 문자 응모** 010-9293-0438
- 직접 응모** 군산시 구영7길 129(영화동) 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 선정시 특전** 1. 우체통거리 주민자치 홍보관 벽면에 기록
2. 우체통거리 주민자치 홍보관 개관식에서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 증정

오행시 응모 ※한 행에 띄어쓰기 포함 14자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
체
통
거
리

이름
주소

연락처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0. 3.15.~4.14.



2020. 3. 18. 수요일

손편지축제 준비회의
우체통거리 두둑잇



2020. 3. 19. 목요일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인남 팀장 2차 강연



2020. 3. 19. 목요일

중앙동 뿌리공동체 3월 정기모임
함라 대화진미



2020. 3. 23. 목요일

월명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회의
군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



2020. 3. 26. 목요일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진과 오시요공동체
미팅 및 강의 장소 점검



2020. 3. 30. 월요일

지속가능한 선도지역
도시재생 논의
월명동 주민협의체



2020. 4. 1. 수요일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주민공모사업 추진 준비회의
우체통거리 커피콩콩



2020. 4. 6. 월요일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논의
신진조선소 노동문 대표 &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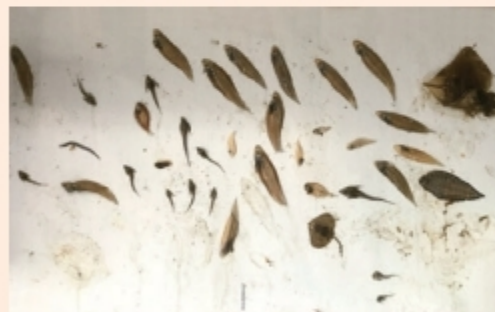


2020. 4. 7. 화요일

홍남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센터 정유진 팀장

하하! 웃고 갑시다

[살아있는 화석]



째보 선창 수변가 '군산 박대 수산(윤종인 사장)'에 가면 볼 수 있다. 벽에 붙어있는 새끼 박대와 가오리가 마치 살아있는 화석 같다. 생선 이름 맞추기도 재밌다.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변하연 코디〉

함께 알아가요!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8.10.01. 조례 제1552호 제정
2019.11.15. 조례 제1690호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정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는 재생이 5월호에 계속



왜?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최종목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다.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정책의 개념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주민공동체의 역할과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사회문제의 창조적인 해결을 위한 사업방식의 하나인 것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목적은 주민공동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자립기반에 근거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립기반의 형식은 다양하다. 마을상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행정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아서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수리사업, 마을신문 제작 및 배포, 마을극장 운영, 공용화장실 청소업무, 마을청소도 진행할 수 있다. 이 모든 업무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수익창출이 목적이고, 그 마을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이 수

반되어야 한다.

이런 순기능을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사업내용으로 잡혀 있을 때에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공동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치더라도, 지자체의 마중물사업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있어야만 사회적경제진흥원과 실험 등 중간지원조직의 교육지원 등 컨설팅이 가능하고,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다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설립절차와 많이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종착지를 하드웨어로 보고 있는지, 주민조직의 자조조직으로 보는지가 핵심이다. 그를 위한 의지도...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국토교통부 2019. 3.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17)